국회에 선명상 전한 진우 스님…“마음 살펴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서 실참 · 법문
종단협 지도자 · 정각회원 등 참석
“내가 평안해야 세상도 평안” 강조
여야대표 “부처님 법 따른 정치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회 정각회가 3월 5일 봉행한 신춘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실참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손은 편안하게 배꼽 아래 모으거나 살짝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주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 사이로 내쉼을 반복합니다. 이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의 지도에 따라 대중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골랐다. 이내 장내는 고요한 침묵이 가득 찼다. 이날 진우 스님에게 선명상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국회정각회의 불자 국회의원들. 한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을 여야를 떠나 선명상을 실참하며 진우 스님에게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헌승)는 3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신춘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증명법사로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선명상 실참지도 후 이어진 법문을 통해 어려운 시국일수록 스스로 마음을 잘 유지시키고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모든 것이 내가 평안한 상태가 돼야 세상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야지혜가 나온다”며 “현재 우리는 안 좋은 공업을 받고 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평안해질 때 깨끗하고 청정한 정토를 이룰 수 있다. 공업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자신이 우선 깨끗하고 평안해야 한다”고 설했다.

그러면서 “안의비설신의를 통해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육도윤회한다. 우리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평안하게 하는 내공을 길러야 한다”면서 “그 내공을 기르는 방법은 선, 또 다른 말로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정각회원들에게 선명상 정진을 재차 권했다. 스님은 “내 눈높이로 세상을 재단하니 시시비비에 휘둘리게 돼 있다. 옳고 그름을 가리 돼 집착은 말고 방하착(放下著)하시라. 그럼 새로운 지혜가 열린다”면서 “매일 1~2분 선명상으로 시작해 5분, 10분으로 늘려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은 건드리지 않으며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해 불자 국회의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1983년 설립된 국회 정각회는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며, 한국불교 중흥과 국민대통합의 길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각회는 중도와 화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온 국민을 평안케 하는 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했다.

〈유마경〉의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경구를 인용한 우원식 의장은 “지금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하여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냐”면서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영배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을 실천해 온 정각회처럼, 더불어민주당도 모두를 위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강선영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들께 안식을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헌승 정각회 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 김영배 수석부회장, 김병주 부회장, 이개호 고문, 이수진 수석간사 등 정각회원 20여 명이 자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 추진

종헌종법특위, 종헌개정안 성안
“94년 협소”…1984년 확대 제안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멸빈자 사면을 촉구하는 유시를 발표하며 총무원 차원의 종헌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헌종법특위)는 3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종헌 개정안을 검토하고 종회 차원에서 개정 취지 내용을 일부 수정해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총무원은 2월 27일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날 종헌종법특위는 “종헌개정안은 원로의장 스님의 유시에 부합하고 종단 화합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1994년 전후 멸빈자에 한정하기 보다는 범위를 넓혀 1984년 이후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종헌종법특위는 총무원이 입법예고 한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검토해 총무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심호계위원을 9인으로 구성하는 ‘호계원법 개정안’도 성안됐다. 현행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해 7인, 재심호계원은 재심호계원장을 포함 9인이다.

성광 스님은 “현행 초심호계위원회 7인 체제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지기 부족하고 현행 7인 체제에서는 성원인 4명만 참여해도 징계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초심호계원의 합리적 판결과 종헌종법에 밝은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숫자를 재심호계원과 동등하게 9인으로 두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만장일치 성안됐다.

임은호 기자

강화 화개사 주지 원준 스님 임명

3월 5일, 임명장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원준 스님에게 화개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포교에 매진해 줘 고맙다”고 격려하며 “교동도 주만뿐 아니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사찰이 될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원준 스님은 대웅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현재 화개사 주지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단 인재 양성 교육기관 입학식 잇달아

5일 중앙승가강원 입학식
6일엔 전법사교육원 입학
동방불교대학 입학식도



태고종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앙승가강원 입학식’ 을 봉행했다. 사진은 입학식 이후 기념촬영.

태고종단의 전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들의 입학식이 잇달아 개최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하 전승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중앙승가강원 입학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올바른 길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태고종의 주인공”이라며 “수행자는 올바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배운 것을 실천할 줄 아는 게 바른 수행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정진하면 종단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다”며 “스스로를 주인되는 삶을 사는 수행자가 돼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상진 스님은 사교과 강주에 도종 스님, 대교과 강주에 화엄 스님을 임명하고 학인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를 부탁했다.

앞서 태고종 불교포교사 산실인 동방불교대학(학장 법담 스님)은 전승관 대회실에서 제43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1982년 문을 연 동방불교대학은 태고종립 교육기관으로 종단 교역자와 불교지도자를 양성해왔다. 이번 2025학년도에는 불교학과 41명, 범패학과 13명 등 총 54명이 입학했다. 이에 동방불교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포함해 불교학과 85명, 범패학과 20명 등 총 105명을 지도한다.

학장 법담 스님은 “2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단 재가법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법사교육원은 제18기 입학식을 3월 6일 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다.

전법사교육원 18기에는 48명의 전법사 후보자들이 입학했으며, 이들은 1년간 전법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 전법사교육원을 이수 후 수계산림을 통해 전법사계 수지하면 전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신중일 기자

봉 행

대한불교화엄승가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회장 이 취임

대한불교화엄승가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새로운 회장단의 이·취임식을 거행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화엄승가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함께 수행의 길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69(2025)년 3월 21일(금) 오후 6시
■ **주최** : 대한불교화엄승가회
■ **장소** : 롯데갤러리움 웨딩홀뷔페
■ **문의** : 010-3869-6799

연번	직위	법명	연번	직위	법명	연번	직위	법명	연번	직위	법명
1	고문	자인 (길상사)	10	부회장	원도 (보정사)	19	회원	여해 (여해정사)	28	회원	지우 (가오정사)
2	고문	법우 (지장선원)	11	〃	보현 (보현암)	20	〃	도법 (혜원사)	29	〃	성덕 (수덕사)
3	자문	범혜 (여래정사)	12	감사	의천 (보덕암)	21	〃	지현 (백련암)	30	〃	선혜 (혜림정사)
4	회장	대각 (옥천암)	13	〃	부원 (부원사)	22	〃	법도 (백령사)	31	〃	삼해 (칠불암)
5	수석부회장	천웅 (관음사)	14	총무부장	성담 (대성미륵사)	23	〃	자현 (자현사)	32	〃	지오 (기원암)
6	상임부회장	향공 (견강암)	15	총무국장	관호 (관호사)	24	〃	해안 (법정사)	33	〃	수월 (락서암)
7	상임부회장	수산 (성불사)	16	재무부장	태산 (약사암)	25	〃	진여 (다보사)	34	〃	도경 (보현사)
8	부회장	법봉 (육조사)	17	재무국장	혜명 (혜원암)	26	〃	대화 (관음사)	35		
9	〃	혜광 (도해사)	18	의전부장	정담 (일광불원)	27	〃	원각 (도원사)	36		

대한불교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 신임회장 **대각** 합장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 안내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은 불교문화의례에 가장 핵심 의식이기에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완전개방, 누구나 공유하고 자타일시 성불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AI인공지능 조예가 있는 분 대 환영)
■ **개강일시:** 2025년 양 4월 2일(음 3월 5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교육기간:** 1년과정 1학기 3개월 2학기 9월부터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명
■ **수 강 료:** 매월 20만원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www.dyhs.kr(담양용화사)
2. 각 종단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교임확인서
3. 반명함판 사진 3매
■ **교육장소:**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 **접 수:** 수시모집
■ **교 과 서:** 별도 (개강일 분배)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과정을 통하여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수료증 포함)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교육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담양 용화사 전화:061-381-2683, 팩스:381-2749, e-mail:hb480806@hanmail.net
증명:도월수진 부법주:대진 합장